

락화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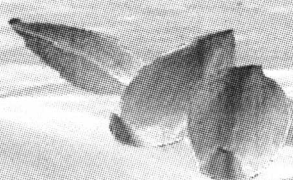
리동렬 저



한국문학사상 제2회 신춘문예 당선작

락화류수

리동렬 저



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落花流水/李东烈著. —牡丹江: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6. 10

ISBN 7-5389-1358-0

I. 落... II. 李... III. 散文—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67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6)第 113040 号

书 名/ 落花流水

著 者/ 李东烈

责任编辑/ 刘相海

责任校对/ 李 丹

封面设计/ 咸成镐

出版发行/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印 刷/ 黑龙江省教育厅印刷厂

开 本/ 850mm×1168mm 1/32

印 张/ 10.5

字 数/ 268 千字

版 次/ 2006 年 10 月第 1 版

印 次/ 2006 年 10 月第 1 次印刷

印 数/ 1-1 000 册

书 号/ ISBN 7-5389-1358-0/I·450(民文)

定 价/ 18.00 元

머리말

흑룡강신문신춘문예장편소설현상공모를 진행한지 어느새 첫 10년이 지나 새로운 10년의 첫시작을 보이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지나온 10년에 보람도 컸고 애로도 많았다.

보람이라 하는것에 대해서는 과거 출판된 단행본 머리말에 이미 언급했기에 여기서 더 중복하지 않으려 한다.

애로점이라고 한다면 주로 장편소설작품 투고자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인것이다. 제1회공모가 있을 때 편집부에서 접수한 장편소설이 무려 8부나 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차차 투고자가 적어져 작품선택의 여지가 충분하지 못하게 되었다. 최근 몇년은 겨우 3편좌우 작품중에서 선정하게 되었다. 장편소설창작이란 단시 몇수를 쓰는것처럼 그렇게 쉽게 창작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소설가들의 고충을 알수 있으나 투고되는 작품이 적으니 우리 편집일군들에게 있어서는 여간 난처한 일이 아닐수 없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투고된 작품들이 좋았기에 몇편 안되지만 그중에서도 우수한 작품을 고를수가 있었다.

이번 제11회 흑룡강신문신춘문예장편소설현상공모에 당선된 리동렬작가의 《락화류수》는 중국조선족 현지사회의 대이동이라는 실황을 작품배경으로 설정하여 중국조선족의 인생세대를 묘사한것으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중국조선족이 중국의 개혁개방이라는 배경하에 해외로 진출하고 연해도시로 진출하고 대도회지로 진출하는 《진통》을 겪고있다. 이는 조선족전통문화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변화되는 가치관념, 인생관, 문화생태앞에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고투하고 고역을 치르면서 자신의 새로운 인생

위치를 찾고있다. 전통소설과는 약간 파격된 서술법과 2차원주제의 설정 그리고 작자의 류창한 언어 등은 조선족장편소설에서 새로운 일면을 보여주고있다.

이 프로젝트를 설정할 때 중국조선족장편소설창작을 추진하여 좋은 작품, 많은 장편소설작가를 배출하려는것이 초지였다. 이제 본 행사를 통하여 11명의 작품을 독자들에게 선보였고 단행본으로 출판하여 도서관에 내놓았다. 이는 장편소설을 창작하는 소설가들에게는 하나의 복음이 아닐수 없다. 아직 우리 문단에는 장편소설창작자원이 많다는것이 본지에서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수 있는 뒤받침이기도 하다. 본지는 언제나 장편소설작가들에게 대문을 열어두고 좋은 작품을 접수할것이며 소설가들도 이에 적극 호응하여주기를 기대한다. 신진소설가들의 생기발랄한 작품을 더욱 환영한다. 새로 시작되는 10회에 더 좋은 작품이 있을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흑룡강신문신문예장편소설현상공모는 한국 통일부의 다함없는 성원과 지지로 지금까지 무난하게 진행하여왔다. 이번 단행본출판기회를 빌어 중국조선족장편소설창작에 기여가 큰 한국 통일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좋은 작품을 쓴 리동렬소설가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새로운 정진을 부탁한다.

2006년 9월 15일
한 춘



마침내 나는 길을 나서게 되었다. 안해를 향한 어떤 오기였을까? 아닐수도 있다. 안해와 딸애는 공항입구에서 나를 내려놓고 곧바로 택시를 돌려세웠다. 웃으며 손을 짓는 모습들이 인차 시야에서 사라져갔다. 그들은 내 식구이고 이 세상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다!

나는 그날의 찌뿌둥한 하늘이며 눅눅한 바람을 잊지 못하겠다. 한줄금의 바람이 내 얼굴에 느닷없이 비방울을 뿌려왔고 나는 허둥거리며 공항입구를 향해 뛰어갔다. 어깨에 멘 가방 하나가 등에서 덜렁거렸다. 안에는 세면도구와 소설책 두권, 펜 하나, 그리고 려권과 약간의 인민폐와 한국 국민은행 현금지급카드가 든 지갑이 전부이다. 카드는 안해가 부산에 있는 친구한테 부탁해 만들어온 것이었다.

공항로비는 탑승객들로 붐비었다. 마치 이 고장 어떤 흐름을 보여주듯 연수나 친척방문, 섭외혼인차 출국하는 승객들이 많았다. 그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이 고장을 살찌우고 그들 가족들의 배를 따뜻이 불러주고있었다. 바래러나온 친척들까지 붐비여 실내는 자못 소란스러웠다. 나는 벽에 붙은 금연포스터를 보고 담배를 꼬나물었다. 택시창가에 비졌던 그녀들의 웃음결이 떠올랐다. 자신이 떠나고있다는 자체가 실감나지 않았다. 오히려 누구를 마중나온 기분이 들었다

한 8개월전에 나는 이곳 공항으로 오사까에서 귀국하는 안해마중을 나온적이 있었다. 5년 3개월만의 상봉, 딸애는 제 엄마의 얼굴이 서먹한지 감히 다가서지 못하고 까만 눈만 말뚱거렸었다. 안해가 먼저 목멘 소리로 불렀다. 진이야! 하고, 딸애는 그제야 제 엄마 품에 뛰어들었다. 그녀들도 울고 나도 울었

다.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혀를 찼었다. 비색이 짙은 리별의 부산정거장 홀러간 옛노래 음률이 내 가슴을 적셔왔었다. 현대 옛노래는 옛것이고 우리는 오늘에 살고있잖은가? 그래서 나는 예나 지금이나 만남과 리별이 우리의 일상을 동반하고있다고 생각했다. 먹고 살기 위해, 혹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때론 보다 나은 생활과 부와 편리를 위해서이리라! 그렇다고 행복에 대한 확실성은 없어보였다. 불행은 얼마든지 길가에서 찢기고 너털거리는 편의비닐주머니처럼 사회에 만연되고있었다.

나는 조용히 담배불을 비벼졌다. 욕심때문이지! 나는 그 점을 분명히 알고있다. 현대 단지 그때문일가? 아니, 아무 리유도 없이 내가 떠나고있는것처럼 안해도 이제 금방 오사까로 재출국수속을 밟고있을것이다. 먹지 못해 입지 못해 기약없는 리별을 하는것은 아니다. 스스로를 주체 못하는 불확실한 환경과 의식에 자기를 맡기는것! 어쩔 우리들에게는 모자라도 넘쳐나도 문제되는것이 있나보다. 아마 그렇게밖에 달리 선택 못하는 족속들인것 같다! 나는 내가 떠나면서도 떠나지 않고 떠나지 않으면서도 떠나고있는 불온자임을 자인하고싶다.

솔직히 공항에 나온 나에게도 다른 선택은 없었다.

2

짐작컨데 한 1년후의 이맘쯤이면 나는 아마 거기에 가있을 것이다. 천도끼(千斧子)—당신이 우리의 족속에로 또 한번 귀순했던 고장, 소시적에 내가 가본 그곳에는 강이 하나 있었다. 폭이 별로 넓지 않으나 그런대로 수량이 꽤 많은 강이었다. 백두성산에서 발원하고있는 전설의 강, 우리 족속들에게는 영원한 푸른 두만강으로 불리우고있었다.



나는 산등성이에 서있었다. 나의 발밑은 가파른 산비탈이고 태고적부터 강물이 축적해놓은것 같은 꽤 너른 평지가 나져있다. 약간 불색을 띤 땅은 참빛으로 빗어놓은듯 곱게 이랑 지워져있고 여나문채의 기와집과 초가가 그곳에 삶의 터전을 잡고있다. 외계와 떨어진 이곳 쪽빛하늘과 가파른 산과 절벽과 강사이 허허공간들에는 유난히 눈 신 해빛이 가담가담 우짖는 물새나 산새의 울음소리들을 곱게 뿜기며 이상한 적막을 빚고있었다.

적막, 나는 그 자체를 사랑했다.

내가 선 자리, 여기에서 당신은 지나간 력사의 이날에 실컷 오줌을 누었다. 그것을 빼들고 오래오래 누런 호수물을 뿌렸다. 당신은 침을 뱉고 이를 갈았다. 다시는 저 강을 넘지 않으리라 맹세했었다. 전쟁터에서 미군에 포로되었다 풀려나온지 3년 2개월이 나던 해였다. 당신이 포로된 곳은 경북 락동강부근, 당신이 WP(전쟁포로)라 쓴 미군이 발급한 옷을 입고 간헐던 곳은 부산포로수용소! 후에는 거제도로 옮겨갔다가 2년후, 포로교환때에야 구사일생으로 풀려나왔었다.

강을 건넌 당신은 내가 지금 보고있는 저기 어느 초가에 찾아들었다. 당신은 주인이 해준 감자밥을 정신없이 퍼먹다 쿡쿡거리기 시작했다. 당신의 뒤에는 귀밀머리 회긋한 주인아줌마와 곱게 숙성한 그 집 딸이 지켜보고있었다. 오열이 인차 그녀들한테까지 번져갔었다.

저녁무렵, 당신과 그 집 딸은 강가 모래톱에 나가앉았다.

강물은 오로지 묵념하듯 하염없이 흐르기만했다.

처녀는 고개를 숙이고 모래톱에 락서를 했다. 웬 사내의 이름을 썼는지우고 또 쓰곤 했다. 그녀의 약혼남은 전쟁터에 나가 감감무소식, 공교롭게도 그녀가 쓰고있는 이름은 당신과 한소대에 있던 전사와 동성동명이요, 미군 전투기의 기총소사

를 받아 당신의 품에 안겨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죽어간 불행한 친구였다. 켜켜이 죽은 눈꺼풀을 내리쓸어줄 때 당신의 손에는 시뻘건 피가 질퍽히 묻어있었다. 총알 하나가 왼쪽머리를 빗겨나간것! 그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외마디소리를 지르며 기혼해넘어갔었다.

그로부터 3년후 당신은 또다시 이곳 물가를 잊지 못해 찾아왔다. 당신은 그때까지도 강가에서 서성이고있는 그녀를 찾아낼수 있었다. 그날 밤 깊은녘에 녀인은 당신의 방으로 간소한 술상을 차려들어왔다. 선선히 웃고름을 풀면서 당신과 하루밤을 기약했다. 눈물과 탄식, 신음과 열광속에서 안타까운 밤은 각일각 서광을 재촉했고 야속한 수탉은 어느결에 회봄한 새벽빛을 감지하고 해를 치기 시작했다.

이튿날 아침, 그녀는 당신의 뒤를 따라나섰다. 빈몸으로 묵묵히 모든것을 단념하듯 녀인은 영영 이 고장을 떠나고싶어했었다...

나는 가파른 산비탈에 붙은 오솔길을 찾아내리기 시작했다. 내 전설의 초가집이 아직 남아있을지 궁금했다. 내 생명 최초의 비밀을 간직하고있을 터전을 찾고싶었다. 그날 밤 당신들의 축축한 숨결을 느끼고싶었고 우연과 필연속에서 내가 생겨난 생명의 비밀을 알고싶었고 당신들의 온도와 습도까지 감지하고싶었다.

나는 내 생명의 근원지에 서있었다. 나는 어차피 저 강물처럼 떠나게 되어있었다. 나는 내 아버지와 엄마의 아들이란데서 영원히 자유로울수 없었다.

3

공향로비커피숍에서 나는 웬 미모의 중년부인과 마주앉았



다. 내가 미소 짓자 그녀가 슬그머니 외면을 했다. 혹 보지 못했을수도 있었다. 우리는 CZ비행기탑승을 기다리다 잠깐 짬을 낸 것이었다.

그녀가 조용히 레지를 불렀다.

《커피, 모카로요.》

모카(Yemen Mokha)라? 영어식발음이 조금 생경하게 들렸다. 커피를 류달리 좋아하는 나는 모카가 커피의 귀부인으로 인정받고있는 예멘커피임을 알고있었고 한번 마셔본 기억도 있었다. 과일향, 와인향, 초콜렛향이 묘하게 어울려져있고 구수한 숭늉을 마시고난것 같이 뒤맛을 주고있는 거피중 진품이었다.

나는 슬그머니 그녀를 훑쳐보았다. 손에 턱을 고이고 눈길 을 조금 내린간채 잠깐 시름에 겨운듯 앉아있는 그녀는 또 다른 모카, 40미만의 깔끔한 부인이었다. (혹은, 그보다 나이 더 많은지도 모른다.) 매끈하게 빠진 다리 허벅우에 까만 스카트가 흰살결을 선명하게 갈라놓았고 잔꽃무늬가 돌친 남색블라우스에 단아하게 어울리는 가는 은목걸이며 귀볼에 붙은 구슬봉 어무늬의 금앞이 세련미를 더해주었다.

그녀는 결눈 한번 흘리지 않고 레지가 갖고온 커피를 조심스레 마셨다. 엄지와 중지로 잔을 잡고 무명지와 약지를 약간 벌린 그녀의 왼손은 단아한 자세와 잘 어우러져 무르익은 녀인의 품위를 온근히 빛내고있었다. 바래주러 나온 손님이 없는것을 보아 나처럼 싱글인듯싶었다. 그래서인지 그녀가 자꾸 의식되면서 기분이 묘해났다.

모카(Yemen Mokha)라?...

야릇한 향기가 목구멍을 간질구었다. 조금은 쓸쓸하고 쓸쓸하기도 했다. 잘 가라, 어찌라, 전화하마, 기다릴게, 누구도 배푸는 사랑이 없으니까 가는것과 남아있는것사이에 우리는 방

불히 세상에서 잊혀진것 같았다.

그녀의 반쪽얼굴이 눈에 차츰 익어왔다.

곧 탑승수속이 개시되었다. 우리는 커피숍을 빠져나갔다. 눈을 내려간채 사색이 잠겨 일어서는 녀인이 괜히 마음 쓰이었다. 나는 그제야 생각이 났다. 그녀를 만났던 날과 장소와 이름이 유진이란것까지도!...그녀도 나를 알아보았을가?

나는 그녀의 뒤모습을 혼상하며 바보처럼 뒤를 따라갔다.

그랬다. 아무리 봐도 그녀는 위불없이 내가 입었던 옷을 입고 내가 했던 말을 하고 내가 웃었던 웃음을 짓고 내가 풍기던 냄새를 피우고있었다. 비록 내가 없었던 시간속에서 살아왔기에 낯설어보이나 내가 살아왔던 고장에서 왔기에 익숙한 스타일이였다.

우리는 한고향사람이였다. 나는 오매불망 고향을 사랑했다.

그녀를 만났던 저녁을 잊지 못한다. 정거장의 넓은 주차장, 북방 특유의 양걸춤, 유난히 맑고 쨍쨍한 새납소리가 성세를 올린다. 빠른 절주로 춤군들을 울긋불긋 리드해간다. 건드려진 멋과 유연하고 경쾌한 춤사위는 북방 대륙의 풍토와 삶과 락을 잘 그리였고 오색불빛이 명멸하는 거리로 수없는 간판들을 활고 흔들면서 건조한 열풍이 불어왔다.

그날 유진이는 부친과 개찰구앞에서 서성거리고있었다. 친구인 남수가 싱겁게 팔소매를 끌었다. 그녀한테 나를 무슨 유망소설가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내가 달갑지 않은지 친구하고만 이야기 나누는 그녀를 보자 나는 은근히 실망을 했었다.

귀밑머리 허연 그녀의 부친이 곁에서 안절부절 못하고있을때 마침 객차가 홈에 들어섰었다.

개찰구로 손님들이 쏟아나오더니 곧 쓸물처럼 빠져나갔었다.

우리 앞에 웬 할머니만 홀로 남아있게 되였고 왜서인지 하



염없이 눈물을 흘리고있었다.

그녀의 부친이 허우적거리며 뛰어갔었다.

이 팔을 잡고 끄억끄억 우는 모습이 민망해보이였다. 왜 이제야 오냐? 얼마나 보고싶었는줄 아냐? 우리 이제 떨어져 살지 말자! 서로의 등을 쓰다듬고있었다. 내 고향 삶의 진풍경이였다.

그들이 떠나가자 친구가 실실거렸다.

《궁금하지? 가만 생각해보면 사람 사는것 재미있다.》

《자식, 뭔데, 그래?》

《응, 유진씨말이야, 우리 마누라와 중학교 동창생인데 공교롭게도 그 집 아들놈과 우리 딸년이 한반이더라...방금전의 그 로친은 유진씨 아버님이 상처하고 나서 3년전에 맞아들인 새어머니래. 두로인은 합친후 줄곧 령감의 퇴직금으로 생활했대. 로친은 령감한테서 매일 남새 살 돈 얼마씩 받아 끼니를 장만했대나? 건데 고지식한 령감은 로임에서 남은 돈을 몽땅 외아들한테 쫓러주곤 했나봐. 아들이 그러지 말라 해도 막무가내, 결국 참다못한 로친이 보따리를 싸고말았지, 허허.》

《그래?...어, 그래서?》

《하루, 이틀... 열흘을 기다려도 로친이 돌아오지 않자 이번에는 령감이 당황해하더라. 밥맛을 잃고 밤잠을 설치며 자식들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대. 아들을 원망하며 로친을 모셔오라, 욕박지르며 허허. 로친도 둘째딸네 집에서 사위 눈치밥 먹기 그겠겠지. 령감의짓은 패썹하나 그래도 밤이면 등 긁어주는 손이 그리웠겠지!...허허, 늙으면 다들 그리 되나봐, 아아.》

《그래서 늙으면 더구나 짝이 있어야지!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것 몰라, 그때 가야 머리 트이겠는지?》

《늙으면 뭐 볼게 있는데?... 너 요즘 이런 말 들어봤어? 선부턴 말이다, 직함이 있으나없으나 같아지고, 예순이 되면 국장을

했든안했든 같아지고, 일흔이 되면 돈이 많은적든 같아진다. 그리고 여든이면 산 사람, 죽은 사람이 같게 된다고 하더라.》

《허허, 그 참 묘하군, 옳은 말이군 그래!》

《그러니 너무 돈돈 하지 말구, 부귀공명 바라지 말란 말일세!》

《하긴...》

친구는 미소를 지은채 시선을 출판에 던져갔다. 새납소리, 북소리, 징소리 더 요란해지는 가운데 춤사위가 울긋불긋 나뭇기고있었다.

나는 그녀 뒤를 바짝 따라 탑승구로 갔다.

내가 아는 여자와 나를 모르는 여자, 단절감과 소통감이 엇갈려왔다. 돌팔이화가인 형의 화법이 우렷이 떠올랐다.

유화 한폭이 눈에 선해난다. 해빛 질퍽한 강둑은 색채감이 너무 질다. 진붉은색은 인간세상사나 사랑따위를 알대로 알아버린 느낌을 랑자하니 펼치고있다. 가방 하나 아무렇게나 어깨에 걸친 그녀가 어디론가 떠나고있다. 얼굴에 몸가짐에 그림자 여럿 비껴있다. 떠난 자와 떠나고있는 자, 또 떠나려는 자들의 모습이랄가?

나는 은근히 그녀와 친해지고싶어졌다.

4

유진씨는 나에게 한녀인의 얼굴을 상기시켜주었다. 때때로 눈앞에 얼른거리며 심심치 않게 내 속을 태우던 녀인, 간밤 꿈속에 나타나 새벽녘까지 심신을 괴롭혔었다.

악몽속의, 그녀의 얼굴은 꺾이한 화상이었다. 입술이 반쪽, 코구멍이 하나, 눈과 이마와 머리가 역시 반이었다. 가운데를 칼로 벤듯 한일자로 자르지 않고 툽날로 알맞춤하게 켜놓은듯,



인증과 이마에 괴이한 무늬마저 새겨져있었다. 나는 무심결에 보이지 않는 반쪽을 만져갔다. 손바닥이 허전해나고 썰렁한 기운이 엄습해왔다. 그쪽은 원래 형체가 없었던것, 마치 찬바람 희오리치는 밀창없는 묘혈같았다. 잔등에 소름이 잔뜩 돋았었다.

언젠가 자기 반면상 초상화를 보여주며 야릇하게 웃던 너인이 떠올랐다.

《진수오빠가 그랬거든요. 이만하면 충분하다. 니 모습이 잘 보인다. 네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 다 그려놓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 않겠어요? 정말 그런가요?》

화백은 나의 둘째형 진수이고, 그녀는 나와 이상한 관계로 어우러진 복선화였다.

아침이 늦었다고 나는 안해한테 괜히 짜증을 냈다.

밖의 날씨는 화창해질것 같았다. 기분이 조금 풀리었다. 이제 바쁜 하루가 시작될것이다. 공항까지 가는데 택시로 40분 족히 걸린다. 세수를 하고 짐을 챙기고 밥을 먹고 옷을 갈아입고 식구들과 작별인사도 해야 한다.

안해의 까꾸장해진 눈살이 좀처럼 펴지지 않았다. 누구탓임까? 깨워도 안일어나는거 어쩔까? 눈이 그렇게 항변해왔다.

나는 안해를 조용히 당겨 품어주었다.

《미안해, 부러 그런게 아니잖아? 그놈 악몽때문에...》

안해는 나를 가볍게 밀어냈다. 입을 삐죽해보였다.

《애 보는데 무슨 장난임까? 빨리 준비하십시오.》

《그럼 공항까지 동행할거지?》

나는 어린애처럼 금방 마음이 약해졌다. 좀 더 살갑고 애뜻함을 가졌으면 했다. 귀가 약간 쳐들린 안해의 입술에 설핏한 웃음이 실렸다. 안해는 적어도 사리 밝고 속이 똑똑하고 차분하고 명철한 타입의 소유자였다. 렬도(列島)의 땡별과 바다

바람에 잘 다듬어진 회고 투명한 살갓과 미끈한 몸매가 내 마음을 또 한번 흔들어놓았다. 오사카에 가있는 몇년사이 사람이 그토록 그리울수 있을까? 그리움이 불같다는 말을 뼈속까지 체험해본 나날들이었다. 이제는 절대 갈라져 살지 말자, 서로 맹세까지 다지지 않았던가?

귀국후 안해는 작은 별장을 구입했었다. 앞뜰에 꽃을, 뒤뜰에는 남새를 심었다. 5월 중순이 되니 가까운 산에 사과배꽃이 만발했다. 승용차 하나 빼면 나들이가 문제되지 않았다. 친구 남수가 와보고 혀를 찼었다. 도연명의 도화원을 꿈꾸느냐고?

그런데 몇달이 지나지 않아 안해가 그걸 되팔줄이야? 알고 보니 또 몰래 일본수속을 밟고있잖겠는가! 나는 완연 미궁에 빠져들었다. 불행한 예감이 가슴을 섬뜩히 그어놓았었다.

그날 안해는 잔뜩 취해 들어오더니 술내를 풍기며 내 목을 부둥켜안고 등을 다독겨려주었다.

《미안, 미안합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습다. 그러니 이번에 서울 가면 돌아오지 않습다, 예? 제가 방법을 대 일본에 데려가든지 어쩌든지 할겁다. 거기선 일본에 쉬이 나올수 있을겁다. 좀만 참으시오, 네?》

《허, 날 또 얼리려 드네. 당신 많이 변했어, 욕심 너무 많아 졌다구! 아직도 뭐가 부족해서 그러지? 이제 좀 편히 살면 안되오, 청춘이 얼마인데, 응?》

《호, 편히?...당신은 글 쓴다지만 정말 생활을 모릅다. 편한 것이 유일한 생활기준이 아님다. 이제 나가보면 알게 될겁다. 제 말 듣습다, 네?》

안해는 이번 기회를 생활의 어떤 반전의 기회로 삼으려 했다. 불법체류를 하더라도 반드시 남아있어야 한단다. 하지만 명색이 문인인데 체면마저 구겨버릴가? 아무리 구슬려도 먹혀들지 않자 안해는 또박또박 분명한 선을 그어왔었다.



《당신, 왜 자꾸 그리 잊먹임까? 기회니까 알아서 어찌 하세요...애한테도 이미 말했습다. 우리 진이는 착하고 똑똑해서 괜찮습다. 전혀 문제 없습다.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을까?》

안해는 랭정했다. 말에 살얼음이 끼있었다. 무엇이 우리사이를 이렇게 만들어놓았는지 모르겠다. 앞날이 막막해날뿐이다.

딸 진이는 초중 2학년생이니 16살, 그런데도 내 눈에는 유치원생으로 보이였다. 토요일이면 저녁약속을 하고 밥을 사주었다. 외할머니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집 떠나면 고생이다. 가슴이 아프나 안해를 이길수 없다. 애 데리고 살림하는 꼴 보기 싫단다. 외할머니가 외손녀를 무척 고와해주어 다행이였다.

딸애는 밥을 먹다가 외려 나를 위안했다.

《아버지, 내가 아직도 어린애인가 함다? 아버지진, 아버지 몸만 돌보시오. 어머니가 잘 벌잡습까? 저한테 돈만 푼푼히 주면 됩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혼자 살만함다.》

환장할 노릇, 애가 훌쩍 커버린듯싶다. 나는 몹시 놀랐다. 애가 낮설어보이였다. 어린것이 홀로서기를 꾀이지 않으니 대견하나 너무 계산적이지 않는가? 돈맛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였다.

이제 나도 안해도 딸애도 가고나면 빈집만 남게 된다. 안해가 없던 세월, 나는 빈집과 많은 대화를 가졌다. 없는것과 있는것, 빈것과 찬것, 부족한것과 충족한것에 관한 사고를 수없이 했다. 그런것은 어차피 철학의 범주에 속했다. 나는 그런 철학은 모른다.

딸애가 어디서 16×16 절지의 그림 한폭을 가져왔다.

《아빠, 이 그림도 가져감까?》

유화속의 주인공은 바로 내 꿈자리를 어지럽힌 녀인, 안해가 짐을 챙기다 말고 문듯 쳐다보았다. 누구? 당신 아는 녀자?

왜 그런 얼굴을 그렸습니까?

《글쎄, 가져가야 하나 어쩌나? 진수형의 작품이요.》

나는 더수기를 긁으며 해명했다. 안해의 얼굴이 금시 별로 고와지지 않았다. 싫다면 그냥 싫어하는 성격, 진수형한테 생긴 선입견을 좀처럼 바꾸지 않고있었다.

딸애가 제격 판결을 내려주었다. 드리내놓고 이죽거렸다.

《해, 이게 무슨 그림임까? 너무 심했다. 가져가든 누굴 주든 맘대로 함다, 예?》

결국 나는 그 유화를 쟁겨넣었다. 빈집에 아무렇게 버려두기가 싫었다. 궤에 넣어둔다는것도 그렇다. 주인 없는 집에 그런 얼굴이 나를 기다리고있다 생각하면 속이 편해질수 없다. 나는 결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

5

마침 그녀의 좌석은 내곁이었다. 티켓을 들고 기웃거리더니 나를 지나 항공기 창구쪽에 가 앉았다. 우리는 비로소 웃으며 눈인사를 주고받았다. 순간 코끝에서 담담한 향수내가 사물거려왔다. 이슬 맺힌 풀잎과 잔잔한 들꽃에서 풍기는것 같은, 싱그러운 살내까지 묻어있다. 묘한 곡선을 그린 눈확과 코와 입 그리고 알맞춤한 귀가 만지고싶도록 생생하게 안겨와서 가슴을 울렁이게 했다. 오래동안 회석해져있던 어떤 느낌이 부활한듯, 내가 버렸던 과거와 나를 버렸던 지난날이 한쌍의 현수막인양 선히 떠올랐다.

먼저 그녀가 눈앞에 다가왔다.

저 멀리 어슴푸레 안개 낀 곳에서 그녀의 모습은 작고 희미했다. 나를 보고 웃는지 어쩌는지分別이 안났다. 그녀의 뒤에 그려진 하늘과 야산의 풍경은 간밤의 비로 축축했다. 동이

